<5월23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2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3 물어 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4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5 눈 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6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마태복음서 11:1~6)**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세례요한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전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중요한 의미를 확인케 합니다. 먼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고, 증거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 **요한복음서 1:19~23,** 19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 누구요?" 하고 물어 보게 하였다. 그 때에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20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 그리스도가 아니오"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 23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오."

세례요한의 대답은 예언자도, 말세에 예언된 엘리야도 아니라고 '단지 나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광야의 소리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또한 자신의 사역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분명히 알았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본분(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과 함께 자신이 준비한 길로 메시아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해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까요?

> **요한복음서 1:29~31,** 29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3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31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민족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군사적 정치적 차원의 해결사로 기대했습니다. 이 땅의 정복자와 같은 이미지이지요! 그런 틈바구니에서 유일하게 세례요한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속죄양이라고 인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 즉 민족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백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서에서는 세례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 묻는 질문의 내용에 갈피를 못 찾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담당할 분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베푸는 세례가 오실 메시아를 준비케 하신 것이라 선언함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를 베푼 이유가 '회개'를 목적하고 있기에 예수님이 세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회개해야 함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마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느냐, 흔들렸느냐에 있지 않고,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실 사역은 세례요한이 알고 증언한 그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영적인 문제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나 감격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여러분, 예수 믿은 보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들이기에 모든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영원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받으셨고, 이것이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선택할 바에야, 의를 선택하여 오히려 죄 때문에 오는 핍박과 고통을 이겨내리라는 고급한(High quality), 신적(영적) 경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여 성공하고, 행복을 추구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 의의 열매를 맺고, 접붙인바 된 포도나무가 되어 영원히 끊이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